부활 제3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홍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강 론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보고 만져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배가 고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레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스승의 십자가 죽음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복음은 그들의 눈이 가리었다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사도신경에서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저자들은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그 강조가 사도신경에까지 포함되었다면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활이라는 믿음은 물질적인 전체 우주가 우리 운명과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몸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광활한 우주와 무수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죽음을 통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희망을 통해 관계가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인간 이외의 우주의 존재들의 끝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같이 자신의 끝에 대한 의미를 고민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활이 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 우주에서의 물질적인 마지막이 존재합니다. 그 마지막은 인간의 육신의 부활과 같이 육에서 영으로의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죽음 이전의 관계의 절대적인 단절이 아니라 우주와의(하느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향해가는 시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죽음은 이런 의미에서 물질과 육신이 영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삶 속에서는 영이 몸과 물질 안에 깃들어 있었지만 죽음을 통해 이제 육신과 물질은 영으로서 영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세계와 관계 맺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전의 관계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편협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말을 통해 인간은 그 편협함을 온전하게 떨쳐내고 우주적 관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이전 관계와 이후 관계의 크기의 괴리감이 죽음의 고통이 되지 않을까요?

부활은 사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2독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사랑은 세상에 물질은 남겨두고 영혼만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 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피조물이기에 그 모든 것은 원래의 자리인 하느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랑의 완성인 부활에 이유 없는 제외는 없습니다.

오승수 시몬 **신부** | 서포선교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사도 3,13-15.17-19
화 답 송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제 2 독 서	1요한 2,1-5ㄱ
복 음	루카 24,35-48

주일 진례

같이 살아요

문옥영 테오도라 시인/ 가톨릭 문인회

한쪽 손이 자꾸만 떨리기 시작했다. 병원을 찾아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병세가 한참 진행되고 나서야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다. 내가 이름도 낯선 불치병에 걸리다니……. 의사에게 병을 고칠 수 없다면 손만이라도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처방약을 먹으니 손은 덜 떨렸으나 부작용이 따랐다. 마음이 침체되고 우울감이 심했다.

흐리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어느 날이었다. 비를 맞으며 걷자니 이 세상에서 그만 사라져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잠깐이었지만 죄스럽고 한심한 내 모습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비록 부자유스럽기는 하지만 한 손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어쩌면 이를 통해 주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게 아닐까? 움켜쥐지 말고 베풀라는 말씀? 언제라도 손을 털고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듣고 싶으신 말이 있는 걸까?

분명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게다.

내 생애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하고 오롯이 봉헌하리라. 그동안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하던 일들을 정리하고, 레지오를 시작했다. 레지오 활동을 하다 보니 병들고 힘없고 가난하지만, 한없이 착하고 여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전에는 절실하게 와닿지 않았던 아프고 가여운 사람들이 마음에 다가왔다.

내게 닥쳐온 불행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니 세상이 달리 보였다. 내 손길이 한번 지나면 구석에 웅크렸던 먼지들이 화르르 깨어났다. 부드럽게 쓸어내린 손길 따라 강아지 흰 목덜미에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내 손끝에서 살림살이는 반짝반짝 빛나고, 화초들은 싱싱하게 자랐다. 내가 손을 흔들어 인사할 때 세상은 햇살처럼 환하게 웃어 주었다.

떨리는 내 손이 조심조심 지나는 이 길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마침 트롯 열풍을 타고 들려온 '연리지'의 노랫말이 가슴 저리게 와 닿았다. 어쩌면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다.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끝내 이렇게 만나게 될 걸 왜 우리 먼 길 돌았나요."

일곱번째 봄, 그대들에게: 세월호 7주기를 맞으며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지평과 초월

부활 예수의 손(조민아 그림)

‘결코 전과 같지 않을 봄’이 일곱 번째 돌아왔습니다. 슬픈 4월, 그대들이 잠긴 차가운 바다가 또다시 우리 마음에 먹먹하게 차오르는데, 꽃은 그 해 봄처럼 여기저기서 펑, 펑, 망울을 틔웁니다. 그대들처럼 천진하게 웃는 노란 꽃들만 보면 우리는 아직도 마음이 저려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이제는 드물게 눈에 띄는 손목의 노란 팔찌, 가방 끝에서 흔들리는 노란 리본, 자동차 범퍼의 노란 스티커를 보면 그대들이 돌아온 것 같아 낯선 이라도 낯설지 않고 악수라도 청하며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평안한가요. 그대들 있는 곳은 평안한가요.

그대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이 땅도 바다도 아닌 가슴에 그대들을 묻고 우리 산목숨들에게 돌아와 버텨온 시간이 칠 년입니다. 사랑하는 그대들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없어 가족들은 죽음보다 힘든 삶을 선택했습니다. 일곱 해가 지났건만, 아직 그대들이 죽어 간 이유조차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족들은 오늘도 외롭고 모진 거리에 섭니다. 그대들이 놓아 준 밑불로 이뤄낸 촛불 혁명이건만, 아직도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우리에게 아득하기만 합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또 안전과 신뢰가 기반이 되는 사회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권리가 왜 이리도 매번 복잡한 절차와 반대 의견에 부딪쳐 무너져야 하나요. 그 일곱 해의 시간 동안 우리는 또 너무나 많은 아까운 목숨들을 재난 사고로, 안전 불감증으로, 생활고로, 혐오와 편견으로 인한 자살로 잃어 그대들 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대들을 실은 세월호가 바다로 잠기던 7년 전 그날이 성삼일을 앞둔 수요일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해마다 부활의 의미를 되물어야 할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부활의 아침에 상처 입은 그대로 돌아온 예수의 몸처럼, 일곱 번째 돌아온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봄”에는 그대들이 떠난 자리가 남긴 상처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흉터가 선연했던 예수의 몸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통의 기억 없이 부활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웠겠지요.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던 그날의 절망과 회한을 잊지 말아야만 하느님 나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했겠지요. 그 기억을 놓지 않았기에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단지 머리로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남긴 삶을, 그의 부활을 살아 낼 수 있었겠지요. 그대들이 남긴 상처도 우리에게 그 남은 자들의 삶을 일깨웁니다. 아픈 기억, 깊은 수치심, 무거운 죄책감을 마주하고 끌어 안지 않고서 새로운 세상을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삶이란 죽음과 부활 양자택일의 삶이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기에 더 질기고 더 치열하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이렇게 다시 그대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곱 번째 봄이 부끄럽고 안타깝기만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대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모진 싸움을 견디고 있는 그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손을 건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거짓된 평화로 위장한 위선적 가치들을 흔들어, 사람 냄새 땀 냄새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며 그대들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시간은 무심한 듯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이행하는 숱한 파괴와 무너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겨울 끝에 봄이 어김없이 돌아와 생명을 쏟아내듯, 죽음의 시절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끝에는 반드시 삶이 있으리라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혼돈 속에서 서로 서로를 버팀목 삼아 생명을 열어갈 것입니다. 봄을 맞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그대들에게 약속했으니까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그대들의 선한 웃음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대들, 평안을 빕니다.

견진성사
일시: 4월 21일(수) 19:30
장소: 거창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본당사목방문
일시: 4월 20일(화)
본당: 거창

교구/본당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
일시: 5월 2일(주일)-진주·거제지구 09:30~17:30
5월 9일(주일)-마산·창원지구 09:30~17: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주제: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강사: 김영구 요한사도 소장
(한울청소년교육문화연구소)
내용: 여름 신앙학교 프로그램 소개
대상: 주일학교 교리교사
(1, 2차 각 선착순 100명)
참가비: 1만 5천 원(참가비는 연수 당일 현금으로 받겠습니다.)
준비물: 마스크, 필기도구, 텀블러, 편안한 복장
신청: 4월 18일(주일)까지
문의: 주일학교부 055·249·7051~2
카카오톡 채널 '마산교구 청소년국 주일학교부'

▶유의사항- 본당별 초등부/ 중고등부 각각 5명 이하로 신청 가능,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연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4월 21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군종후원회 감사미사
일시: 4월 21일(수) 10:00
장소: 삼천포성당
문의: 교구 군종후원회 055·249·7113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4월 기도 모임
일시: 4월 19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5월 100단 묵주기도 행사
일시: 5월 17일(월) 08: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회비: 1만 5천 원
대상: 교구 신자 누구나
접수: 선착순, 4월 30일(금)까지
문의: 회장 010·9399·5454

기 타

바오로딸 랜선청년성소축제
일시: 4월 24일(토) 18:30~21:30
대상: 35세 이하 청년
방법: 온라인 줌
문의: 김 베로니카 수녀 010·2507·1610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성소자 만남 및 상담
일시, 장소: 전화 면담 후 결정
대상: 국·내외 전교와 봉사에 관심있는 39세 이하 미혼여성
문의: 김 엘리사벳 수녀 010·4732·8247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문의: 010·2133·4903

마산가르멜산의 성모재속회원 모집
일시: 5월 17일(월) 10:00
(셋째 주일 지난 월요일)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피정의 집
대상: 만55세 이하 남녀 가톨릭 신자
문의: 010·8525·1150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진주향외과의원
- 치핵(치질)/ 변비치료 - 피부 점/ 티눈 제거 수술
- 피부 흑 제거 수술 - 화상 및 상처 치료
- 귀두 표피 환상 절제술 - 각종 예방접종
진주시 중안동 16-16번지 2층 (시내 교육청 앞)
TEL. 055) 748-0975
조영현 라파엘 박미리 엘리사벳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Viriditas
"생명을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가르드
힐데가르드 화장품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정순 힐데 수녀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제주 성지 순환버스 39,000원
제주 성지 6곳 / 2명 이상 매일 운행
■한국 성지 167 완주
5. 24.(월)~5. 27.(목) 인천·의정부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민족화해를 위한 평화학교

일시: 4월 25일(주일) 10:30~12:00
장소: 여좌동성당
내용: 주일미사, 평화공연, '평화사도직' 강연
주최: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 7007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신간소개

어린이 성가-가톨릭 주요 기도문 (바오로딸키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가톨릭 주요 기도문 성가 음반

어린이들이 주요 기도문을 기쁜 마음으로 자주 바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쉽게 부르는 성가 디지털 음반이다. 가톨릭 주요 기도문 중,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 〈반성기도〉, 〈고백기도〉, 〈통회기도〉, 〈삼덕송〉, 〈봉헌기도〉, 〈삼종기도〉, 〈부활 삼종기도〉,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의 노래와 반주(Inst.) 음원이 수록되어 있다.

- **제작: 바오로딸**
- **발매일: 2021년 3월 23일**

강박적 신앙에서 잃어버린 것-이범선의 『피해자』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이범선은 『오발탄』으로 잘 알려진 작가이다. 그의 또 다른 작품 『피해자』는 기독교도의 여러 강박적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최요한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고아들을 위해 헌신한 교회의 장로이다. 그런 아버지가 막상 주인공 최요한이 고아인 양명숙을 사랑하여 결혼하려고 하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자신의 외아들을 고아들과 전혀 차별 없이 키우고 그들을 위해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던 최요한은 아버지의 이중적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

아버지가 고아원을 운영한 것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동정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하느님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를 알게 되면서 최요한이 아버지에게 가졌던 신뢰와 존경심은 급격히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심약한 주인공은 그런 아버지의 위선에 반항하지도 갈등을 극복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열정도, 용기도, 지성도, 신앙도 없는, 소위 허위나 악덕마저도 없는 완전한 등신'이라고 자학한다.

사랑하던 명숙은 고아원을 뛰쳐나가고,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어느 목사의 딸과 결혼하여 교회의 집사가 되고, 기독교 계통 학교의 교사가 된다. 그런 그가 만난 또 한 명의 허상적 신앙인은 바로 그의 아내이다. 그의 아내는 기도는 꼭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다. 새벽마다 그녀는 우는 아이와 출근하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기도하러 교회에 간다. 이런 아내의 태도를 요한은 '맹신'이라고 여기고 그녀와의 생활을 '지옥'으로 여긴다.

> **그런 나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다.**
>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밀어 맡기고 방금 낮잠을 자다 깨어난 때처럼 허심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내처럼 마치 머리의 비듬을 털듯이 예배당 마룻바닥에다 쉽사리 마음의 괴로움을 떨어버릴 재주도 못 가지고 있다.**

가장 가까운 종교인들의 허위적인 모습에 염증을 느끼던 최요한은 우연히 20년 만에 술집 마담이 된 명숙을 만나게 된다. 그때까지 요한과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던 명숙은 수학여행지 경주까지 요한을 따라가고, 그곳에서 투신자살을 하고 만다. 죽은 명숙을 끌어안고 요한은 한국의 목사, 장로, 그리고 기독교도인 모두가 그녀를 죽였다며, 그들 모두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라고 절규한다.

최요한이 외친 이 절규는 기독교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인습으로 화석화된 신앙에 대한 고발이다. 그런 인습의 틀에 얽매여 신앙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혼미한 신앙의 어둠 속을 헤매는 종교인들도 결국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작가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큰 교리는 '진정한 사랑' 위에 있음을 일깨워 준다.

작가의 말대로 우리는 '성경책을 채찍 대신'으로 사용하며 고정화된 교리 문구만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문구를 조금이라도 어긴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공동체의 형제자매들로 모인 것은 아니다. 모든 종교적 형식을 떠나 마음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어루만져 주기 위해 모인 것이다. "사랑이 아니라 사명감에서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종교의 노예가 된 신앙인의 허상"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이 작품, 역설적이게도 그 제목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데서 그들 모두를 감싸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작품이다.